

## 보도참고자료

### 제 목 : 금융정책협의회 개최

#### 주요내용

- ☐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, 금융감독위원회 유지창 부위원장 (이종구 상임위원 대참) 및 한국은행 박철 부총재는 8.10일 (금) 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과 8.10일 여야경제정책협의회 합의에 따른 금융부문의 후속조치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- ☐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8.9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하는 우리경제의 부진이 예상보다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금융완화기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
  - 수요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거의 없고 생산능력 면에서 여유가 있어 콜금리 인하가 물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설명하였음
- ☐ 한편, 참석자들은 이번 금리인하가 시차가 있을 수 있지만 투자·소비등 실물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

○ 이번 금리인하로 은행의 여수신금리의 추가하락이 기대되고 상대적으로 고수익이 기대되는 투신사의 채권형·주식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

□ 한편 8.10일 여야경제정책협의회 합의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융부문에서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우선 추진하기로 하였음

○ 워크아웃 진행업체(35개)에 대하여는 경영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졸업 또는 자율추진을 권고하고 부진한 기업에 대해서는 처리방침을 조기에 결정하고,

○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시스템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늦어도 9월말까지 처리방향을 확정하는 한편, 은행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(8월) 및 검사등을 통해 상시평가시스템의 조속한 정착을 유도하기로 하였음

- 한편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변경과 관련하여 금융관계법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30대 계열기업에 규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개별법률의 취지에 맞게 개선키로 하였으며
-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에 있어 소송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보다 세밀히 강구키로 하였음

보도자료 생산처 :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(500-5341)  
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과(3771-5155)  
한국은행 통화운영팀(759-4475)